

‘해체 위기’ 광주 하남초 ‘후암관악부’ 5년만에 하모니

코로나 여파 단원 급감 등 난항에 학교·동문 뜻 모아
‘14회 정기연주회’ 개최 감동…市교육청도 “예산 지원”

‘해체 위기’에 내몰렸던 광주 하남초등학교 ‘후암관악부’가 지역사회 지원에 힘입어 부활을 알리는 무대에서 감동을 선사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하남초 ‘후암관악부’는 학교 강당에서 5년 만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하남초 4·6학년으로 구성된 50여명의 단원들이 ‘관악부 부활’을 목표로 지난 몇 년간 겪은 험난한 상황을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오페라의 유령, 캐리비안의 해적 등 비교적 익숙한 히어로 영화음악 등에 담아 선보였다.

후암관악부는 지난 2009년 창단해 한때 호남예술제, 관악경연대회 등 주요 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단

원이 한 자릿수로 급감한 데다, 지도강사마저 한 명, 두 명 이탈하면서 관악부 해체 여론이 제기됐었다.

관악부는 플루트, 클라리넷 등 다양한 악기가 함께 연주해야 하는 특성상 단원수가 50명은 돼야 한다. 초등학교생의 경우 소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규모를 더 키울 필요성도 있다.

후암관악부의 해체 위기 소식을 접한 학교, 학부모, 동문회 등은 한마음 한 뜻으로 지원에 나섰다.

이유신 지휘자를 비롯한 이들은 1대1 레슨, 비대면 합주연습, 졸업식·입학식 등 작은 음악회 개최, 초보 연주자를 위한 편곡, 노후 악기 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덕분에 정기음악회는 아니지만 2022년 2년 만에 작은 음악회를 여는데 성공



광주 하남초등학교 4·6학년 5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후암관악부’가 최근 5년만에 정기음악회를 개최, 감동을 선사했다.

〈광주 하남초등학교 제공〉

했으며, 단원 유지 활동을 통해 지난해에는 단원수가 25명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관악부가 다시 운영된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몰리면서 현재 단원수는 50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하남초는 앞으로 정기연주회 개최, 지역사회 행사 참여, 교외 음악회 개최, 노후화된 관악기 수리 및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계철 하남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은 “관악부 학생들이 대부분 1년차인데도 열심히 연습해 좋은 연주를 들려줘 대견하다”며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 하남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이 연주 활동을 하며 학교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이기자

“여기가 ‘소년이 온다’ 역사 속 장소”

전남대 5·18연구소, 유학생 대상 오월 역사 교육
한강 소설 주요 장소 탐방 프로그램 인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설에 나온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장소를 탐방하며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접수 시작부터 전 회차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1일자 교육은 지난 16일 방글라데시와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23·24일엔 전국 외국인 유학생이, 24일엔 인도와 파키스탄 유학생이 각각 참여했다. 오는 30일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내달 20일에는 전남대 유학생들이 탐방에 나선다.

참가 학생들은 5·18 강연을 들은 후 옛 전남도청과 옛 적십자병원, 전일빌



딩245 등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를 해설사의 통역과 함께 둘러보게 된다.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연구실에만 있다 보니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방글라데시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시민 투쟁이 전개되고 있어 5·18에 대해 더 크게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시가 후원하는 5·18민주인권인권교류프로젝트 중 하나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유학생들과 함께 소설 속 배경인 5·18사적지를 탐방하면서 5·18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동강대 군사학과,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최다 합격

여생도 2명 포함 12명…2025학년도부터 4년제 운영

동강대 군사학과가 지난 2011년 학과 창설 이래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

25일 동강대학교 군사학과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진행된 ‘2025년도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여생도 2명을 포함한 1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는 김상연·소현석·최아론·황

선중·차승현·조현빈·황재용·주성민·김명금(여·이상 2년), 박동욱·송길현(여·이상 1년) 등 재학생 11명과 졸업생 고영빈 등이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장교로 정으로 국가직 공무원 7급에 해당된다.

특히 동강대 군사학과는 내년 졸업 예정자인 2학년 전원이 국가직 공무원 인 7급 육군 장교(9명)와 9급 RNTC 부

사관(11명), 전투부사관(8명) 등으로 취업이 확정돼 직업 군인의 꿈을 이루게 됐다.

조동권 학과장은 “동강대 군사학과는 이번 선발시험에서 22년도 7명, 23년도 4명(여생도 1명), 24년도 9명(여생도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25년도에는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며 “특히 여생도의 경우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광주교대,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운영

내달부터 내년 1월 중 8개 전공 32명 모집

광주교육대학교는 25일 “교육부로 부터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설치와 운영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중 2025학년도 박사과정(윤리 철학교육전공, 지속가능환경 시민교육 전공, 과학교육전공, 체육학과 전공, 교육과정과 수업 전

공, 교육행정 정책 전공, 교육심리 상담 특수교육 전공, 컴퓨터교육전공) 신입생 32명을 모집한다.

문병찬 대학원장은 “이번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개설은 광주교대가 교육 연구와 실천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각 전공 분야는 미래 교육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말했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개설을 통해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하고 융합적이며 혁신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광주교대 교육전문대학원은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역량을 겸비한 교육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